에이즈와 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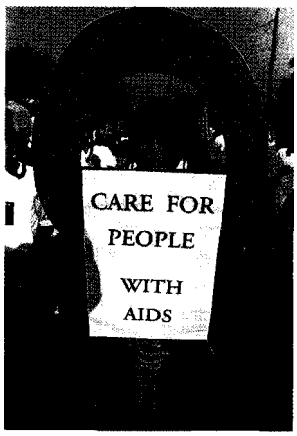
케냐 에이즈 국가재앙 첫 선포

다니엘 아랍 모이 케냐 대통령은 에이즈를 국가적 재앙으로 선포했다.

모이 대통령은 나이로비에서 열린 에이즈 심포지엄에서 급속히 번지고 있는 에이즈는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이같이 선포했다. 이에 따라 범국가적 에이즈 캠페인을 주도할 협의기구를 즉각 창설하고 모든 학교와 대학에 에이즈 교육을 포함시키라고 지시했다.

케냐에서는 이제까지 76만 명이 에이즈로 숨졌으며 3천만 명의 인구 중 190만 명이 HIV에 감염돼 있다. (연합뉴스 1999/11/29)

'세계에이즈의 날' 행사 개최



'세계에이즈의 날'인 12월 1일 유엔과 세계 각국은 에이즈 확산 실태를 공개하고 퇴치와 예방법을 계몽하는 각종 행사를 개최했다.

유엔은 특히 에이즈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전세계 1천1백여만 어린이들의 고통을 알리고 지원책을 논의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편 아시아 전체 감염자의 60%를 차지하면서도 정부의 무관심으로 비난을 받아온 인도도 자체 에이즈의 날 행사를 했다. 인도 보건부는 사상 처음으로 지난달 HIV 보균자가 전국적으로 35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세계 에이즈 바이러스 보균자 3천360만 명 가운데 무려 12%에 해당된다.

일본도 세계에이즈의 날을 맞아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상반기 동안 전국적으로 230명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확인했다. 후생성은 6개월간 보고된 수치로는 역대 두번째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1999/12/01)

에이즈재단, 에이즈는 경제문제라고 지적

근로자와 소비자의 주축을 이루는 20~40대 연령층이 에이즈로 사망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상당수 국가들이 경제와 사업에 타격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고 미국 에이즈 연구재단이 지난 11월 31일 지적했다.

이 재단은 이제 에이즈가 세계신문의 보건면에서 경제면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경제계에 근로자와 소비자를 모두 공격하는 에이즈를 주목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경제신문 1999/12/01)

나이지리아도 에이즈와의 전쟁선포

케냐에 이어 아프리카 최대 인구 보유국인 나이지리아도 에이즈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인구 1억800만 명인 나이지리아는 최근 HIV 감염자수가 급증, 수백만 명이 사망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에이즈 환자의 폭발적 증가에 직면했다고 12월 1일 발표된 정부 보고서가 경고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95년 에이즈 조사가 실시된 이후 일부지역의 경우 HIV감염 증가율이 7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향후 5년간 나이지리아의 HIV 신규 감염자가 49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일부 지역의 경우 에이즈 폭발을 저지하기엔 이미 뒤늦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1999/12/2)

아동 최대의 적 '에이즈 · 분쟁'

에이즈의 확산과 지역 분쟁이 21세기에도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협하는 '괴물'로 지목됐다.

카롤 벨라미 유니세프사무총장은 12월 12일 '세계 어린이 현황2000' 보고서를 발표, 에이즈와 지역 갈등으로 인한 어린이 희생자들이 늘면서 소아마비 백신과 같은 20세기에 이룩된 놀라운 진보들을 퇴색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15세~24세 연령층에서 1분에 5명이 에이즈에 감염되고 있으며 1,100만 명이 현재 에이즈로 고통받고 있다. (대한매일 1999/12/14)

아프리카 넘치는 에이즈환자, 국가서 포기선언

21세기 벽두부터 아프리카 대륙이 에이즈로 휘청거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케냐와 나이지리아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선 공중 의료기관들이 환자 치료를 사실상 중단했다.

남아공은 병원으로 찾아오는 에이즈 환자들을 그냥 돌려보내고 있다. 치료제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진료를 받기도 하늘의 별따기다.

어린아이들에게도 단 한번의 진료만 허용된다. 환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 비해 의료시설은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이다. 남아공은 확인된 에이즈 감염자만 인구의 10%인 4백만 명에 이른다. (중앙일보 2000/1/10)

UN, 에이즈 전쟁 선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아프리카의 에이즈와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 1월 10일 앨 고어 미국 부통령은 유엔 안보리 연설을 통해 '에이즈 퇴치'를 세계 주요 안보의제로 설정하고 아프리카에서 만연하고 있는 에이즈를 추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간 에이즈 대책이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아동기금(UNICEF) 등에서 논의돼 왔지만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직접 나선 것은 아프리카의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홀브룩은 "지금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을 맞게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중앙일보 2000/1/12)

개도국 에이즈치료약 생산 저지

미국은 대기업의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에이즈 치료약 생산을 저지하고 있다고 세계적인 인권단체인 국경없는 의사회(MSF)가 지난 1월 13일 밝혔다.

노벨평화상 수상 단체인 MSF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국민 60명당 1명꼴로 에이즈에 감염돼 전체 보균자가 95만 명에 달하는 태국의 경우 "에이즈 치료약인 디다노신을 생산할 준비가 돼 있으나 미국 제약업계와 무역대표부의 통상압력으로 생산이 무산됐다"고 비난했다.

MSF방콕사무소의 데이비드 윌슨은 "태국은 지난 92년이래 헐값의 개량 DDI생산을 허용할 계획이었으나 미국의 계속된 수입관세 부과 압력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MSF는 또 미국이 독점하고 있는 에이즈 치료약은 너무 고가에 판매되고 있어 에이즈문제가 심각한 아프리카와 아시아, 남미에서 에이즈 환자에 대한 치료는 비용문제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2000/1/13)

에이즈치료 국내 첫 성공

최강원 교수

에이즈를 국내에서도 칵테일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음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서울대병원 내과 최강원, 오명돈교수는 지난 11월 27일 대한감염학회에서 98년 5월부터 99년 3월까지 에이즈로 이 병원을 찾은 52명의 감염자를 대상으로 칵테일요법을 실시한 결과 6개월 이상 복용한 환자 21명중 17명(80%)에게서 혈액에서 바이러스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칵테일요법이란 단백분해효소억제제와 역전사효소억제제 등 15개 항(抗)바이러스제제 중 세가지 이상을 동시에 투여하는 치료법으로 96년 미국에서 처음 개발됐다.

최교수팀이 가장 대표적인 칵테일요법인 크릭시반, AZT, 3TC를 환자에게 투여한 결과 혈액검사에서 에이즈반응이 음성으로 전환됨은 물론 림프구 수도 늘어나는 등 면역력이 회복됐다는 것. 또 면역기능이 떨어져 일어나는 감염질환도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최교수는 "에이즈는 과거 불치병이었으나 칵테일요법의 등장으로 당뇨나 고혈압처럼 약만 제대로 복용하면 아무런 증상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만성질환의 하나로 격하됐다" 고 강조했다.

그러나 칵테일요법이 에이즈의 완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약을 끊게 되면 재발한다. 치료비가 비싼 것도 단점이다.

하지만 칵테일요법을 받는 동안엔 에이즈바이러스가 대부분 사라지므로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가능성이 거의 없고 면역력 저하로 사망할 확률도 크게 줄어든다.

최교수는 "국내에서도 칵테일요법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에이즈감염자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전에 적극적인 칵테일요법을 통해 확산을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1999/11/29)

AIDS 에이즈 연구

임산부 HIV 혼합약물 요법 성공적

HIV 양성 반응 임산부에 대한 강력한 혼합약물 투여 요법이 신생아에 별로 부작용 없이 산모로부터 출생아에게 HIV가 전염될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산부인과학지(誌) 최신호가 지난 11월 25일 보도했다.

연구진은 혼합약 투여 요법이 임산부에서 신생아로 바이러스가 전이되는 것을 성공적으로 방지하여 출생후 4개월까지 어떤 아기에게서도 HIV 감염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999/11/26)

에이즈 감염여부 3분내 판정 진단시약 개발

동아제약은 3분 안에 에이즈감염여부를 알 수 있는 초고속 진단시약을 개발, 내년 초부터 국내외에 본격 판매한다고 지난 12월 16일 발표했다.

동아제약은 에이즈진단시약의 경우 혈장이나 혈청 한두 방울로 에이즈 감염여부를 별도 장비 없이 눈으로 판별할 수 있어 전문검사장비가 없는 곳에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상온에서도 1년이상 보관이 가능해 아프리카 동남아 중남미 등에도 특별한 장비없이 운송할 수 있고 저장이 쉽다고 설명했다.

현재 에이즈진단시약의 세계시장은 약 1백억 달러를 형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1999/12/16)

HIV감염자 에이즈 발생시기 예측 가능

HIV 감염자가 본격적인 에이즈 증세가 언제쯤 나타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됐다. 미국 워싱턴주립대학의 제임스 멀린 박사는 HIV감염자가 에이즈의 임상적 증세가 나타나기 3-4년 전에 이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멀린 박사는 HIV감염자가 임상적 에이즈 증세가 나타나면 효과적인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999/12/20)

여성 에이즈 바이러스 남성보다 다종 확인

여성은 남성과는 다른 형태로 HIV에 감염되므로 여성에게 효과적인 에이즈 백신의 개발이 더욱 어려울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시애틀의 프렛 허친슨 암연구센터 연구진은 남성은 처음 HIV에 감염될 때 한 종의 HIV 변종에 감염되는데 반해 대부분의 여성은 다수 HIV 변종에 감염된다고 밝혔다. HIV는 일단 감염된 후 많은 변종으로 자체 복제되는 데 처음 감염될 때부터 다수의 변종에 감염되는 경우에는 백신 개발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동아일보 1999/12/28)

에이즈 확산

에이즈 발병 후 1천600만 명 이상 사망

에이즈 발견이후 1천600만 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3천360만 명이 HIV에 감염된 채 새해를 맞게 될 것이라고 유엔산하 기구들이 지난 12월 23일 밝혔다.

UNAIDS와 세계보건기구 보고서는 금년 한 해동안 사상 최고인 260만 명이 에이즈로 사망했으나 560만 명으로 추산되는 성인과 아동이 감염되는 등 감염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HIV 감염자의 95%는 개발도상국에 거주하고 있어 가난과 열악한 의료제도, 그리고 제한된 예방과 치료수단 등으로 인해 바이러스 확산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1999/11/23)

러시아 에이즈감염자 급속히 확산

러시아에 에이즈감염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 11월 23일 현재 러시아 전역에서 공식적으로 에이즈감염자로 판명된 사람은 2만2천500명으로 지난해의 1만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모스크바와 모스크바주에서 감염자가 급속도로 늘어 이 지역에만 현재 6천500명이 등록됐다.

감염자의 90%는 마약중독자들이며 마약을 사용하는 모체로부터 에이즈바이러스를 옮겨 받는 어린이 감염자도 올들어 48명이 확인 됐다. (연합뉴스 1999/11/26) Ⓐ